**유노쓰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유노쓰의 온천은 약 1300년 전에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승려가 여행을 하던 도중 이 지역을 지나다가 늙은 너구리 한 마리가 김이 나는 웅덩이 속에서 심한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 온천이 치료탕이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헤이안 시대(794~1185)에 이미 저멀리 교토까지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유노쓰를 자주 찾게 된 것은 14세기에 들어선 이후부터로 이때부터 유노쓰는 요양지로 유명해졌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인구와 소비가 증가한 은광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물자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유노쓰의 번화한 항구로 들어오는 배의 선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여관이 만들어졌습니다. 1918년 철도역이 개통되면서 해운업에 타격을 입고 1923년에 이와미 은광까지 폐광되어 지역이 더욱 쇠퇴한 후에도 유노쓰의 온천은 여전히 마을을 지탱하는 큰 요소였습니다. 현재 유노쓰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된 온천 마을로 ‘모토유’와 ‘야쿠시유’라는 두 개의 공용욕탕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랜 역사를 지닌 모토유는 2개의 작은 욕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욕조에는 42도까지 식힌 온천수가, 다른 하나의 욕조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46도~47도의 온천수가 담겨 있습니다. 욕탕 밖에는 온천수를 직접 마실 수 있는 수도꼭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천수는 마실수록 점점 익숙해지는 맛으로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야쿠시유는 처음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추천할만한 곳으로 옥상 테라스에 올라서면 유노쓰 마을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